

불안한 미래, 젊은 남녀의 위기

# 요즘 젊은이들은...



1920년대 경성남대문동

1919년 3.1운동이후 조선인의 의식개혁과 함께 도시중심으로 근대교육(서구)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도시는 근대화 되기 시작했다.

경성을 위시한 대도시는 일본 거류민 증가와 함께 그들의 은행, 회사 등이 세워지고 조선인사회에도 지식기반으로한 새로운 직업인 은행원,교사, 회사원 등을 비롯해 작가,화가 연예인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민지하의 조선인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었고 많은 지식청년들이 도시를 배외하는 “룸펜

(Room pen)” 으로 전락 했는데, “이태백”의 원조격인 이들의 “도회(도시)생활5계명”을 소개할까 한다.

제1조: 이발사와 목욕탕 주인을 친하라

제2조: 하숙집 안주인과 하인을 친할지니라

제3조: 연애의 승리는 먼저 여자를 육체적으로 점령하는데 있느니라

제4조: 긴밀하지 않는 친구에게 주소를 알리지 말지라

제5조: 동거지나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소지품을 천대 하느니라

...마상살림(떠돌이 살림)과 같은 재군들의 생활에 별반 값나가는 소지품이 있을 리가 없다. 입은 양복은 단벌이요, 구두가 한 켤레,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모두가 단수품이 아니야..... 그들에게 소지품은 공산심리에 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1910년대 요리집

## 20년대 청년 남녀의 위기

사회는 이들에 대해...

...“근일 청년계의 현상을 보건대 일부 불량청년의 유인을 받아 연극장, 신명(충무로)기생집, 술집 갖흔 불미한 곳에 다니면서 무서운 죄악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명예를 깨트릴 뿐 아니라 종말에는 흉악하고 무서운 화류병(성병)에 걸리어.... 청년학생중에 자유연애라는 것을 표방하여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일도 업지 아니하다더라.

-1920년대 "청년남녀의 위기"신문사설-



1920년 음화(요리집 홍보용) - 여성신체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거꾸로 편집함.

## 불안한 미래, 그들의 선택은?

요사이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사실 내 주위에는 30대 중, 후반인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포기했는지, 미루고 있는지 어정쩡한 이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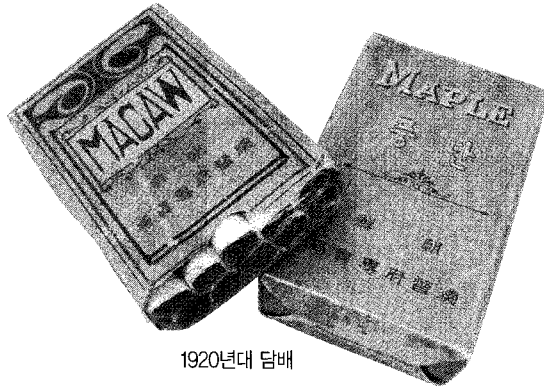
내가 하는 일이 "전시"라는 특수한 일이라 이들 거의가 석,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인데도 그들 수입을 보면 납득이 간다.

몇 년 전 서울서 일을 할 때 이들 중 커플이 있었다. 몇 달 전 이 커플의 남성에게서 청첩장이 날라왔다. 반가운 마음에 성급하게 그에게 전화를 걸어 늘상 같이 붙어 다녔던 여성에 대해 과잉할 정도로 치켜 세우고는 좋은 동반자를 구했다고 칭찬을 했었다.

"김선생님 청첩장 자세히 안 보셨군요"

"그 박선생과 지금 결혼 할려고 하는 중학교 선생인 박선생은 이름 끝자가 틀려요"

그는 현명했다. 그가 하는 "큐레이터"일이 불안정한 직업이기  
에 그의 반쪽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를 택한 것이었다.



1920년대 담배



1930년대 성병약